

기혼자의 가족여가의례와 가족여가의례 후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배재현¹*, 박세정²

¹대구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²영남이공대학교 사회복지·보육과

The effects of Family Leisure Ritual and Positive·Negative Outcomes of Family Leisure Ritual on Marital Satisfaction with the Married

Jae-Hyun Bae¹*, Se-Jeong Park²

¹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aegu Science University

²Department of Social Welfare&Childcare, Yeungnam University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가족여가의례와 가족여가의례 후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혼자 216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다변량분산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여가의례의 주요활동은 ‘근교나들이’가 가장 높았고, 갈등요인은 ‘가족 공동의 시간을 갖기 어려워서’가 가장 높았다. 둘째, 가족여가의례는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30대 이상이 50대 이상보다 가족여가의례를 더 많이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여가의례 후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기혼 남성이 기혼 여성보다 긍정적 효과를 높게 지각하였고, 기혼 여성이 기혼 남성보다 부정적 효과를 높게 지각하였다. 셋째, 가족여가의례와 가족여가의례 후 긍정적·부정적 효과는 결혼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여가의례를 많이 실행할수록, 가족여가의례 후 긍정적 효과를 높이 지각할수록, 부정적 효과를 낮게 지각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기혼자들이 가족여가의례 수행과정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family leisure ritual and positive·negative outcomes of family leisure ritual on marital satisfaction of the married. A survey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216 married people. SPSS Win program was used to perform MANOVA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1)In the family leisure rituals, the main activity was 'going out in the suburbs' and the main difficulty was 'lack of mutually available time for all family members'. (2)The family leisure ritual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ge. Over 30 years participated in more family leisure ritual than over 50 years. The positive·negative outcomes of family leisure ritual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Men evaluated more positive outcomes of family leisure ritual than women whereas women evaluated more negative outcomes of family leisure ritual than men. (3)The family leisure ritual and positive·negative outcomes of family leisure ritual affected marital satisfaction. This study indicated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a positive outcome effort of family leisure ritual for increasing marital satisfaction in the married.

Keywords : Family Leisure Ritual, Marital Satisfaction, Negative Outcomes of Family Leisure Ritual, Positive Outcomes of Family Leisure Ritual, The Married

*Corresponding Author : Jae-Hyun Bae(Taegu Science Univ.)

Tel: +82-53-320-1794 email: cinespac@tsu.ac.kr

Received October 14, 2016

Revised (1st November 7, 2016, 2nd November 9, 2016)

Accepted November 10, 2016

Published November 30, 201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가장 오랫동안 유지한 사람’에게 상을 수여하는 ‘멍 때리기 행사’가 열렸다[1]. 이는 무언가를 해야만 하고 하지 않으면 자신이 도태되고 경쟁에서 실패할 것만 같은 현대인들의 심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능력 중 한 가지는 잘 쉬는 능력 즉 휴식력(休息力)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시간은 자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극히 사회적인 것이다[2]. 그래서 현대사회의 환경은 다양한 상황적 요인들로 인해 개인의 휴식을 위한 시간할애를 힘들게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유급의 일을 위한 시간, 가족원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시간, 여가를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지만[3] 기혼자라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중 자신을 위한 시간보다는 돌봄과 가사 등 가족들을 위한 시간을 더 필요로 하는게 현실이다.

많은 시간 제약에도 불구하고 기혼자들에게 있어 개인적 여가활동은 일상생활에서 오는 신체적 피로를 풀어 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 다시 일할 수 있는 재생산 기능을 한다[4]. 또한 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여가의 경우 여가활동을 통해 주관적인 불만이나 권태감이 해소되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족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5], 가족 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촉진하며 친밀감과 결속을 강화하고 위기대처 능력을 높여주는[6] 등 다양한 긍정적인 기능들을 제공해 준다.

개인의 여가활동이 가족단위로 이루어질 때 가족여가 활동이라 일컫는다. 가족여가활동은 가족이 함께 하는 여러 활동 중 여가와 관련된 일부의 활동을 의미하는데 반해[7] 가족여가의례는 가족여가활동이 일상화되고 장기간 유지되어 가족구성원이 공유하는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8]. 또한 가족여가의례는 가족구성원이 공유하는 활동임과 동시에 그에 대한 가족구성원이 느끼는 감정, 상징적인 의미인 주관적인 측면까지 포함하는 좀 더 넓은 범주의 개념이다[8]. 따라서 가족여가활동 중 일부가 반복되고 지속되면서 그 가족만의 특별한 의미로 자리 잡을 때, 가족여가활동이 가족여가의례의 개념으로 발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여가활동에 비해 가족여가의례가 개인 혹은 가족에게 미치는 영

향을 다룬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한편 결혼만족도는 개인이 현재의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개념[9]으로, 부부관계의 다양한 측면들과 관련되므로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또한 결혼만족도는 크게 두 범주로 분류되는데[10], 하나는 부부관계에 한정된 범주로 부부간의 애정 및 성, 의사소통, 갈등, 배우자 역할수행 등을 포함한 좁은 범주이고 다른 하나는 부부관계를 포함한 경제, 여가, 사회활동, 자녀 및 관계, 자아개념 등 결혼생활 전반을 포함시킨 넓은 범주이다. 또한 중·노년기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관계 요인으로 Cho[11]는 부부간의 헌신 및 책임, 애정관계, 여가공유, 의사소통, 가사분담을 들고 있다. 이를 통해 가족여가의례가 넓은 의미에서 결혼만족도와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다.

Choi와 Kim[12]은 기혼 여성들의 가족의례 실행 정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를 높게 지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12]는 기혼 여성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기혼자 모두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가족여가의례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직접 다룬 연구가 부족하여 가족여가활동과 관련된 연구를 적용하여 가족여가의례와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시간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3], 부부가 스포츠 활동에 함께 참가하는 경우 부부의 애정적, 헌신적, 성적 친밀감이 높아진다는 연구[14]도 있다. 이는 가족여가를 위해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부부간에 이뤄지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증가되고 결혼생활에 좀 더 결속된 느낌을 가지게 만들며[15], 부부가 같이 있고 싶고, 특정한 여가활동 공유를 좋아해서 함께 즐길 때, 순환적인 여가활동으로 인해 상호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더욱 커지고 전반적인 결혼생활에도 만족하게 됨을 의미한다[16]. 그러므로 부부 혹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들의 결혼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족여가의 경험을 통해 개인이 갖는 인식 및 감정상태가 좀 더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때 가족여가의 가치는 상승한다[17]. 따라서 가족들이 함께 하는 가족여가의례의 실행뿐 아니라 가족원들이 그 여가의례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식하는가도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이에

Cheon[18]은 가족구성원별로 가족여가활동으로 인한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확인한 결과, 자녀가 부모보다 긍정적 효과를 더 높이 평가하였고 부정적 효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동일한 경험을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만족스러운 부분이 때론 다른 배우자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 기혼자인 남녀 모두를 포함한 가족여가의례와 가족여가의례 후의 인식 정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1.2 연구의 목적

이에 본 연구는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가족여가의례와 가족여가의례 후의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기혼자들에게 역할에 대한 부담과 시간사용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여가의례의 중요성을 밝힐 수 있고, 가족여가의례의 실행과정에서 유발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을 활용하여 개인의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여가의례의 주요활동과 갈등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여가의례, 가족여가의례 후의 긍정적·부정적 효과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족여가의례와 가족여가의례 후의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시에 거주하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2016년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한 후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한 21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가족여가의례 척도

가족의례 척도는 Fiese[19]의 가족의례 질문지(Family Rituals Questionnaire : FRQ)를 사용한 Choi[2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여가의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제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여가의례의 실행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89였다.

2.2.2 가족여가의례의 주요활동 및 갈등요인

가족여가의례의 주요활동과 갈등요인은 Choi[2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여가의례 주요활동은 가족여가의례 시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선호하는 가족여가의례가 무엇인지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갈등요인 가족여가의례를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2.3 가족여가의례 후 긍정적·부정적 효과

가족여가의례 후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척도는 Cheon[18]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 중심의 여가시간이나 활동이 자신의 가족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의 정도를 묻는 긍정적 효과 5문항과 부정적 영향의 정도를 묻는 부정적 효과 7문항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제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부정적인 효과를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긍정적 효과 .83, 부정적 효과 .84였다.

2.2.4 결혼만족도 척도

결혼만족도 척도는 Jung[21]의 RKMSS (Revised form of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결혼생활, 배우자로서 남편, 남편과의 관계, 아버지로서의 남편에 대한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제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96이었다.

2.3 자료 분석 및 통계적 처리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여가의례,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MANOVA를 실시하였고, 가족여가의례와 가족여가의례 이후의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상관관계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 37.5%와 여성 62.5%이고, 연구대상자 본인 연령은 30세 미만 5.1%, 30~40세 미만 35.2%, 40~45세 미만 40.7%, 50세 이상 19%였다. 배우자의 연령은 30세 미만 4.2%, 30~40세 미만 32.9%, 40~45세 미만 38.4%, 50세 이상 22.2%였다. 학력은 고졸이하 18.5%, 전문대졸 17.1%, 대졸이상 64.4%이었고 자녀수는 0명 12.5%, 1명 23.6%, 2명 56.9%, 3명이상 6.9%였다. 가족의 소득은 300만원 이하 12.9%, 301~400만원 16.7%, 401~500만원 12.5%, 501만원 이상 57.9% 순이었다. 연구대상자 본인 직업은 사무직 31%, 전문기술직 30.6%, 판매 및 서비스직 10.6%순이었고, 배우자의 직업은 사무직 23.6%, 전문기술직 21.8%, 전업주부 및 무직 18.1%순이었다(Table 1).

3.2 가족여가의례의 주요활동 및 갈등요인

가족여가의례의 주요활동은 1순위에서 ‘근교나들이’ 25.5%, ‘외식하기’ 17.6%, ‘종교생활하기’ 13.4%, ‘문화생활하기’ 11.1%, ‘쇼핑 및 장보기’ 10.6% 순이었고, 2순위에서 ‘외식하기’ 23.6%, ‘쇼핑 및 장보기’ 17.1%, ‘근교나들이’ 15.3%, ‘문화생활하기’ 12.5% 순이었으며, 3순위에서는 ‘쇼핑 및 장보기’ 27.8%, ‘외식하기’ 20.8%, ‘부모님택 방문하기’ 13.4%, ‘근교나들이’ 11.6%순이었다. 모든 순위를 종합하여 보면 ‘근교나들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식하기’, ‘쇼핑 및 장보기’, ‘문화생활하기’ 순이다. 그리고 가족여가의례의 갈등요인은 ‘가족공동의 시간을 갖기 어려워’ 35.2%, ‘학교 공부 및 직장일이 바빠서’ 28.7%, ‘몸이 피곤해서’ 12% 순이었다(Table 2).

3.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여가의례, 가족여가의례 후의 긍정적·부정적 효과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가족여가의례, 가족여가의례 이후의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MANOVA를 실시하였다. 가족여가의례는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여가의례 이후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는 성별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0세 미만인 경우가 50세 이상인 경우보다 가족여가의례를 더 많이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혼 남성이 기혼 여성보다 가족여가의례 이후의 긍정적 효과를 높게 지각하였고, 기혼 여성이 기혼 남성보다 부정적 효과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16)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81(37.5)
	female	135(62.5)
Subject's age	>30	11(5.1)
	30 ≤ <40	76(35.2)
	40 ≤ <50	88(40.7)
	50 ≤	41(19.0)
Spouse's age	>30	9(4.2)
	30 ≤ <40	71(32.9)
	40 ≤ <50	83(38.4)
	50 ≤	48(22.2)
Subject's level of schooling	Non-response	5(2.3)
	≤High School Graduate	40(18.5)
	College Graduate	37(17.1)
Number of children	University Graduate	139(64.4)
	0	27(12.5)
	1	51(23.6)
	2	123(56.9)
Family income	3 ≤	15(6.9)
	≤300	28(12.9)
	301 ≤ ≤400	36(16.7)
	401 ≤ ≤500	27(12.5)
Subject's job	501 ≤	125(57.9)
	Housewife/inoccupation	20(9.3)
	Manufacturing/Skill job	5(2.3)
	Simplicity labor	1(0.5)
	Service job	23(10.6)
	Self-employment	8(3.7)
	Office job	67(31.0)
	Technical job	66(30.6)
	Managerial post	6(2.8)
	Professional	12(5.6)
Non-response	8(3.7)	
Spouse's job	Housewife/inoccupation	39(18.1)
	Manufacturing/Skill job	12(5.6)
	Service job	7(3.2)
	Self-employment	15(6.9)
	Office job	51(23.6)
	Technical job	47(21.8)
	Managerial post	18(8.3)
	Professional	13(6.0)
Non-response	14(6.5)	

Table 2. Main activities and difficulties in family leisure ritual (N=216)

Variables	Categories	N(%)		
		no. 1	no. 2	no. 3
Activities	Going out in the suburbs	55(25.5)	33(15.3)	25(11.6)
	Walking at a park	8(3.7)	14(6.5)	2(0.9)
	Eating out	38(17.6)	51(23.6)	45(20.8)
	Playing sports	22(10.2)	18(8.3)	9(4.2)
	Cultural activities	24(11.1)	27(12.5)	22(10.2)
	Religious activities	29(13.4)	7(3.2)	10(4.6)
	Visiting in parents' house	13(6.0)	25(11.6)	29(13.4)
	Family volunteer work	3(1.4)	3(1.4)	3(1.4)
	Go shopping	23(10.6)	37(17.1)	60(27.8)
	the others	1(0.5)	1(0.5)	11(5.1)
Difficulties	Busy schedule	62(28.7)		
	Dead tired	26(12.0)		
	Financial burden	7(3.2)		
	Unnecessary	5(2.3)		
	Lack of mutually vailable time	76(35.2)		
	Family troubles	3(1.4)		
	often conflict during the family leisure activities	3(1.4)		
	the others	34(15.7)		

3.4 가족여가의례와 가족여가의례 후의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Durbin-Watson 지수가 2.11로 종속변수는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립변수 간 VIF 지수는 1.09~1.63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자녀수, 소득수준)만 포함된 모형1 위계에서 성별(더미변수, B=-.38)과 연령(B=-.03), 소득수준 (B=.17)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설명력은 16%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 가족여가의례 변인을 추가 투입하였고 설명력은 30%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족여가의례는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가족여가의례의 실행이 높을수록(B=.70) 결혼만족도가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는 가족여가의례후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변인을 추가 투입하였는데,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모두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45%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 효과를 높게 지각할수록 (B=.41), 부정적 효과를 낮게 지각할수록(B=-.37)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3. Difference of family leisure ritual, positive · negative outcomes of family leisure ritual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16)

Variable	Categories	N	Family leisure ritual			Positive outcomes of family leisure ritual			Negative outcomes of family leisure ritual		
			M	SD	F	M	SD	F	M	SD	F
Gender	Male	81	2.92	.61	.04	3.54	.63	4.67*	2.70	.62	4.33*
	Female	135	2.93	.58		3.35	.63		2.90	.71	
Subject's age	>30	11	3.29	.71	7.35***	3.51	.51	.65	2.65	.75	.70
	30 ≤ <40	76	3.05	.60		3.45	.63		2.85	.65	
	40 ≤ <50	88	2.94	.52		3.44	.66		2.87	.75	
	50 ≤	41	2.59	.57		3.30	.62		2.72	.60	
Level of schooling	≤H.S.Gr.	40	2.81	.61	1.72	3.40	.68	.78	2.90	.73	.34
	Col.Gr.	37	2.85	.64		3.31	.72		2.78	.71	
	Uni.Gr.	139	2.98	.57		3.45	.60		2.81	.66	
Number of children	0	27	2.91	.81	1.76	3.34	.69	1.13	2.85	.69	.12
	1	51	3.03	.47		3.45	.59		2.77	.63	
	2	123	2.92	.58		3.45	.66		2.84	.72	
	3 ≤	15	2.63	.62		3.16	.42		2.83	.54	
Family income	≤300	28	2.90	.67	.86	3.24	.56	.86	2.88	.67	.17
	301 ≤ ≤400	36	2.79	.57		3.48	.61		2.85	.57	
	401 ≤ ≤500	27	2.99	.60		3.44	.51		2.86	.70	
	501 ≤	125	2.96	.58		3.44	.68		2.79	.71	

*p<.05, **p<.01, ***p<.001

Table 4. Correlations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 D.Gender	-								
2. Subject's age	-.03	-							
3. Level of schooling	-.32***	-.16**	-						
4. Number of children	.06	.56***	-.13*	-					
5. Family income	-.04	.12*	.19**	.20**	-				
6. Family leisure ritual	.01	-.29***	.12*	-.09	.07	-			
7. Positive outcomes of family leisure ritual	-.15**	-.09	.05	-.01	.06	.47***	-		
8. Negative outcomes of family leisure ritual	.14**	.01	-.04	.01	-.05	-.13*	-.34***	-	
9. Marital Satisfaction	-.21**	-.24***	.23***	-.15*	.18**	.46***	.50***	-.40***	-
M	.63	41.9	2.45	2.58	3.15	2.93	3.42	2.82	3.80
SD	.49	8.63	.79	.80	1.12	.59	.64	.68	1.02

Dummy variable : D.Gender(male=0, female=1)
*p<.05, **p<.01, ***p<.001

Table 5. The effect of family leisure ritual, positive · negative outcomes of family leisure ritual on marital satisfaction (N=216)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D.Gender	-.38	-.18**	-.40	-.19**	-.23	-.11*
Subject's age	-.03	-.24**	-.01	-.10**	-.01	-.11*
Level of schooling	.12	.10	.09	.07	.11	.09
Number of children	-.04	-.03	-.09	-.07	-.09	-.07
Family income	.17	.19**	.14	.15*	.13	.14*
Family leisure ritual			.70	.41***	.43	.25***
Positive outcomes of family leisure ritual					.41	.26***
Negative outcomes of family leisure ritual					-.37	-.25***
R ²	.16		.30		.45	
ΔR ²			.15***		.14***	
F	7.73***		15.17***		20.86***	

*p<.05, **p<.01, ***p<.001

4. 논의 및 결론

4.1 논의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여가의례의 주요활동을 순위별로 보면 ‘근교나들이’가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외식하기’, ‘쇼핑 및 장보기’ 순이었다. 그리고 가족여가의례의 갈등요인은 ‘가족공동의 시간을 갖기 어려워’, ‘자녀공부 및 직장일로 바빠서’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12]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서

울시민의 휴가 및 여가문화생활’ 조사[22]에서 주말 및 휴일의 여가활동(중복응답)으로 ‘여행 및 야외 나들이’에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43%인 것과 응답자의 50.5%가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에 참여했다’라는 응답 결과도 이를 지지한다. 주요활동이 매우 활동적인 모습은 아닐 지라도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노력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가족여가의례의 실행을 위해 가족 공동의 여유시간을 가지기 힘든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가족들마다 그들의 특별하고 의미있는 가족여가의례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역별 혹은 기간별로, 계절별로, 근거리와 원거리, 연령별 등 다양한 범주별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 안내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손쉽게 자신에게 맞는 가족여가의례를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가족여가의례는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0세 미만인 경우가 50세 이상인 경우보다 가족여가의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자의 나이가 30대일수록 가족중심활동을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23]와 50대 이상의 중년층일 경우 여가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높는데 반해 여가사회화 경험이 부족하여 실제로 적극적인 여가활동 참여가 어렵다는 연구결과[24]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20~30대 기혼자일 경우 고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활동력을 가지고 있어 개인적 만족을 주는 여가활동을 좀 더 추구하고, 가족에 대한 관심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므로 여가에 대한 욕

구 또한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추측된다. 이에 반해 50대 이상의 기혼자들은 경제적 상황이나 건강, 체력 등과 같이 가족여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추측된다[4].

그리고 가족여가의례 후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 남성이 기혼 여성보다 가족여가의례 이후 긍정적인 효과를 높게 지각하였고, 기혼 여성이 기혼 남성보다 부정적 효과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 여성이 기혼 남성보다 가족여가활동 후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문항인 ‘가사노동 시간의 증가’를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결과[18]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가족여가의례는 다른 가족성원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돈과 시간 등을 투자해야 하는 소비적 활동이므로, 부모들은 가족여가를 즐기기보다 여가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더 많이 느낀다[25]. 또한 부모 중 기혼 여성이 기혼 남성보다 가족여가 실행과정에서 실제로 개인적인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더 많이 느낄 것이고, 경제적 부담감, 가족 간 갈등과 의견불일치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반해 기혼 남성은 기혼 여성보다 가족여가 실행에 대한 부담감이 낮으므로 가족여가를 통해 좀 더 가족 간 친밀감과 애정이 증가하고 자신이 하는 일의 능률 또한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인식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가정내의 모습 또한 많이 변화되었으나 기혼 여성들의 가사와 양육에 대한 이중부담은 실제로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족이 함께 즐기면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가족여가의례를 계획하기 위한 각 가족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중 성별, 연령, 가족소득이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 남성이 기혼 여성보다 결혼만족도를 높게 지각하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만족도를 낮게 지각하였으며, 가족소득이 증가할수록 결혼만족도를 높게 지각하였다. 이는 기혼 남성이 기혼 여성보다 결혼만족도를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결과[26]와 일치하는데, 기혼 남성이 기혼 여성보다 가사와 양육 같은 가정내 역할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추측된다.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27]

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데, 연령이 낮을 경우 결혼 생활 속에서 야기되는 갈등이나 긴장감이 낮기 때문에 추측된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28]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데, 소득이 낮을 경우 경제적 긴장으로 야기되는 부부갈등이 증가되어 결혼만족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여가의례는 결혼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여가의례의 실행을 많이 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는 가족여가의례의 실행정도가 높을수록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12]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시간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3],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관계 요인으로 여가공유를 들고 있는 연구결과[11]도 이를 지지한다. 가족여가를 통해 부부간에 이뤄지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결혼생활의 결속된 느낌을 가지게 하였기 때문으로[15] 추측된다. 또한 기혼자의 경우 자녀들과 배우자가 함께하는 여가실행 시 가족들의 만족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보람과 함께 자긍심을 함양시켰을 것이다. 부부가 함께 여가활동과 식사활동, 가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혼자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므로[29], 가족 모두 참여하는 여가의례를 만들기 어렵다면 부부중심의 여가 혹은 식사의례를 결혼 초기부터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연령 증가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결과를 볼 때, 중·노년기가 되기 이전에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가족여가의례 후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는 결혼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여가의례 후 긍정적 효과를 높게 지각할수록, 부정적 효과를 낮게 지각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는 부부가 표면적인 행동 이면의 욕구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면 배우자로부터 적절한 지지와 공감, 수용을 받는다고 느껴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연구결과[30]와 가족간의 수용적인 태도 없이 단순히 표면적인 측면만으로 상황을 인식하게 되면 내면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측면인 비판과 비난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31]를 적용해 볼 때, 가족여가의례 시 자신이 느끼는 솔직한 감정과 생각들을 먼저 확인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표현함으로써 자기이해와 수용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자기 이외의 다른 가족성원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적절히 표현해준다면 가족 간의 의사소통 또한 증진되고[32]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보다 전통적인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를 더 많이 취하기 때문에[33] 아내는 남편의 협조 요청을 때로는 어려워 할 수 있고, 기혼자들이 갖는 가족에 대한 과도한 책임의식과 이중역할에 대한 부담감 또한 이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돌봄과 가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행동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서로의 입장을 공감해주고 배려하기 위한 긍정적인 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여가의례의 주요활동은 ‘근교나들이’, ‘외식하기’, ‘쇼핑 및 장보기’ 순이었고 갈등요인은 ‘가족공동의 시간을 갖기 어려워’, ‘자녀공부 및 직장일로 바빠서’순이었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연령에 따라 가족여가의례실행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가족여가의례 후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 연령, 가족소득이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가족여가의례와 가족여가의례 후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도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론을 통해 몇 가지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여가의례의 주요 활동 중, ‘외식하기’와 ‘장보기’는 가족식사의례 수행과 유사한 내용들이다. 따라서 추후에는 가족식사의례와 가족여가의례를 좀 더 세분화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가족여가의례의 실행을 위해서는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시간적 할애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가족 모두가 모이는 가족여가의례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족여가의례와 부부중심의 여가의례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각 가족들이 좀 더 선호하거나 실행이 용이한 여가의례의 형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대구시에 거주하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성별과 연령에 따른 동일한 비율구성을 하지 않아 일반화에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성별

과 연령, 지역별로 고른 조사가 이루어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가족여가의례와 관련된 연구는 가족여가 활동에 대한 연구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한 가정의 가족여가활동이 지속되고 그 가족만의 특별한 의미로 자리잡게 될 때, 가족여가활동은 가족여가의례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여가활동의 변화과정에 대한 단기종단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가족여가의례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여가활동 특성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1] ChoSun-ILBo, 'Space Cut' Contest, Available Fro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23/2016052301735.html cited 2016 May 23.
- [2] V. Bryson, *Gender and the Politics of Time : Feminist Theory and Contemporary Debates*, Bristol : The Policy Press, 2007.
- [3] M. N. Jang, G. H. Han, A typology of dual-earner families using work-family-leisure time ratio and the differences in the daily emotional experiences between husbands and wives, *Family and Culture*, vol. 27, no. 2, pp. 98-129, 2015.
- [4] P. S. Kim, T. H. Kim, Family Relationship Adaptation by Leisure Activities and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9 no. 3, pp. 1-31, 2004.
- [5] H. S. Byun,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y and Family Stress, Family Cohesion among Married Women,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39 no. 1, pp. 170-178, 2000.
- [6] J. Y. Lee, A study on the family function, leisure constraint and leisure satisfaction : Focus on married employee, *Journal of Leisure Studies*, vol. 6, no. 3, pp. 135-156, 2009.
- [7] E. Y. Kim, J. Y. Park, A Study on the Satisfaction with Life and Family Role Salience Perception through Types of Family Rituals - Mainly for unmarried males and females,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vol. 17, no. 3, pp. 105-124, 2013.
- [8] H. S. Jung, G. S. Ryu, *Family Relationship*, 2006.
- [9] S. M. Yung, H. S. Jung, Variables affecting the adjustment of marital Life and satisfac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 of rural in Korea,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1, no. 3, pp. 223-252, 2006.
- [10] Y. J. Hong, S. J. Moon, K. O. Huh, The Effects of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Couples and the Sense of Fairness on Marital Satisfact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35, no. 2, pp. 345-358, 1997.
- [11] H. S. Cho, The Effect of Conjugal Relationship in Middle and Old age on Marital Satisfaction: Focused on the Moderate Effect of Ego-Resilience, *Journal of Life-span Studies*, vol. 3, no. 2, pp. 1-19, 2013.

- [12] H. J. Choi, D. S.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ituals and Marital Satisfaction for Wiv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7, no. 6, pp. 111-124, 2009.
- [13] M. G. Son, Special Issue : Policy of the city in low birth time, *Urbanology*, vol. 45 no. 501, pp. 22-26, 2010.
- [14] S. H. Park, The relationship of martial empathy, intimacy and the leisure joint ownership intention of leisure application quality, emotional expressivity and the couple of the married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ok-Min University, 2007.
- [15] D. S. Ahn, J. W. Lee, The Effects of Leisure Activity Patterns to Marital Satisfaction of the Urban House Wiv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1, no. 1, pp. 55-65, 1983.
- [16] Y. B. Lee, Conjugal Role Sharing on Women's Marital Satisfactio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33, no. 1, pp. 103-131, 2010.
- [17] B. J. Lim, H. S.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s of Leisure Activity and Leisure Satisfaction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35 no. 4, pp. 4480-4491, 1996.
- [18] H. J. Cheon, Family Leisure Motivation and Outcomes of Family Leisure Activities,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vol. 8, no. 2, 2004.
- [19] B. H. Fiese, Dimensions of family rituals across two generations : Relation to adolescent identity. *Family Process*, vol. 31, pp. 151-162, 1992.
DOI: <https://doi.org/10.1111/j.1545-5300.1992.00151.x>
- [20] H. J. Choi,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Ritual and Marital Satisfaction of Wife, Unpublished Mater's thesis, Bu-San University, 2009.
- [21] H. S. Jung, Research : Marital Relations : A Critical Review and Development of Measurement,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35, no. 1, pp. 191-204, 1997.
- [22] J. S. Han, 'The Vacation of Seoulite and Leisure Culture Activity' Available From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DCD=A00703&newsid=01282486612719768> Edaily, cited 2016 July. 30.
- [23] P. S. Kim, T. H. Kim, Family Relationship Adaptation by Leisure Activities and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9, no. 3, p.1-31, 2004.
- [24] H. B. Lee, The Study for Desirable Use of Elderly People's Leisure, HONG-IK collection of dissertations, vol. 26, 1994.
- [25] S. K. Han, S. O. Kim, Development of Parent Education for Family Leisure -Focus on the parent of adolescent,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46, no. 5, pp. 35-61, 2008.
- [26] S. W. Jang, H. J. Chung, J. Y. Lee, The Influence of Family-of-Origin Experiences and Marital Intimacy on Parent-Child Relat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5, no. 4, pp. 93-111, 2011.
- [27] G. S. Ryu, S. H. Kang, A. L. Oh, J. H. Lee, Effects of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the Husbands and Wives in Dual-Earner Families,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vol. 15, no. 1, pp. 117-136, 2011.
- [28] S. J. Kang, J. H. Choi, A Study on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Family Strengths of Rural Housewiv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5, no. 2, pp. 71-85, 2010.
- [29] W. K. Bryant, Y. Wang, Time together, time apart : an analysis of wives solitary time and shared time with spous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vol. 11, no. 1, pp. 89-119, 1990.
DOI: <https://doi.org/10.1007/BF00986943>
- [30] L. S. Greenberg, P. S. James, R. F. Conry, Perceived change processes in emotionally focused couples therap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 2, pp. 5-23, 1988.
DOI: <https://doi.org/10.1037/h0080484>
- [31] H. J. Ha, S. M. Kwon, Suggestions for psycho-therapeutic application of mindfulness meditation, *Buddhism school newspaper*, vol. 56, pp. 241-271, 2010.
- [32] E. Kennedy-Moore, J. Watson, *Expressing emotion*. New York: Guilford Press, 1999.
- [33] J. H. Kim, Y. J. Moon, The Impacts of Gender Role Attitudes on Marriage Life Satisfaction and Work Satisfaction among Women of Double Income Households: With a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work-family conflict and work-family enhancement,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vol. 14, no. 2, pp. 109-126, 2010.

배 재 현(Jae-Hyun Bae)

[정회원]



- 2000년 2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정학과(가정학석사)
- 2007년 2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이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대구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아동발달, 유아교육, 가족학

박 세 정(Se-Jeong Park)

[정회원]



- 2000년 2월 :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학과 아동이상 및 복지(문학석사)
- 2008년 2월 :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사회학박사)
- 2008년 8월 :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사회복지학석사)
- 2009년 3월 ~ 현재 : 영남이공대학교 사회복지·보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보육, 아동복지, 사회학